# Avantgarde Acoustic

## Holger Fromme CEO

_인터뷰어 김문부 기자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듣고 싶군요.**

2년 전 아이어쇼에서 만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아방가르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운드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인 개발도 완성했으며, 새롭게 G2 시리즈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 태인기기와 협력하여, 아방가르드의 모든 것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방가르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역사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립 당시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아이팟, 닌텐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음악만이 유일한 유희였습니다. 제가 하이파이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오 숍에서 우연히 클립시혼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혼의 매력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의 매력에 빠져 클립시혼을 구매하고, 본격적으로 하이파이 시스템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오디오파일들처럼 음악의 즐거움에 오디오를 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공연장에서 일렉트로보이스의 혼 스피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프 연주회였는데, 혼만으로 그렇게 천상의 투명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곧바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혼 스피커 제작에 대한 결심이었죠. 그 후로 수많은 연구 서적들을 읽으면서, 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브에 관한 여러 수학적 공식을 연구하고, 의료용 석고로 수많은 혼을 본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독학을 하던 중, 한 명의 엔지니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마티야스였습니다. 그는 드라이버, 여러 전기적 회로 등 기술적인 부분에 정통하였고,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연구하여, 첫 스피커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창립 스토리입니다.

**처음 제작한 스피커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떤 제품이었습니까.**

가장 처음에 제작했던 스피커는 트리오입니다. 물론 지금의 트리오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ABS의 재질이 아닌 파이버글라스로

혼을 성형하였고, 나무 소재로 인클로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든 스피커를 베를린 오디오 쇼에 전시하였습니다. 물론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단순히 전시만 해놓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방가르드 스피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트리오에 이어 우노, 듀오를 완성하고,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CES, 밀라노 등 여러 하이파이 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태인기기 등 여러 디스트리뷰터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아방가르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Simple is Best'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없애고, 가장 필수적인 것만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아도, 서브우퍼 · 프레임 · 혼 이렇게 3가지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큰 아름다움을 이뤄냅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로고를 보아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혼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색을 지원하는지요.**

혼은 대략 11가지의 색깔을 지원하고 있고, 패널 등을 합친다면 무려 300가지 이상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방가르드와 함께 하는 애호가들을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조합을 선택하여 오랫동안 아방가르드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운드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Purity meets Performance'란 슬로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어느 한 순간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93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의 진정한 진가를 전했습니다. 지금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 스피커가 왜곡된다는 그 편견을 많이 버렸고, 오히려 혼 스피커만의 사실적인 무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커튼이 쳐지지 않은 맑은 전망의 사실적인 소리, 무대 깊숙이 퍼져 나오는 에너지감을 아방가르드를 통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한 문장에 담았는데, 바로 'Purity meets Performance'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없애고, 순수함을 더하고, 최고의 성능을 담은 혼 스피커, 그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방가르드의 실제 튜닝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뤄집니다.**

철저하게 귀로 측정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측정치를 산출해놓아도 실제로 들을 때는 그 느낌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면, 측정치만 놓고 보았을 때 듀오가 오히려 트리오보다 좋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보면 트리오에 손을 들죠. 이것이 저희가 청감에 많은 부분, 신경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과정은 철저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수없이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완벽한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이죠.

**공장을 새로이 확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아방가르드의 근황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바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G2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고, 새로운 브로슈어도 제작했고, 웹사이트도 새롭게 단장했고, 새로운 슬로건을 내놓았으며, 600평 규모의 새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공장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던한 오디오 공장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쇼룸과 리스닝룸도 새롭게 단장했는데, 아방가르드의 모든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G2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다시 한 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점들이 개선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외관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층 튼튼해진 베이스 프레임에 견고한 스파이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파이크 구성으로 한층 더 단단해진 저역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의 프레임 고정 장치를 달았고,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재질의 혼 유닛 커버를 채용했으며, 다양한 마감을 선택할 수 있는 전면 패널을 우퍼부 앞에 덧대어 디자인적으로 더욱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베이스 모듈이 더욱 강력해졌고, 콘덴서를 새롭게 개발했으며, 내부 선재 등을 최적화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포장에서도 많은 부분 신경 썼습니다. 물론 G2 시리즈를 통해 소리에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방가르드의 앰프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모델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를 근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3과 모델 1 사이의 제품이 될 것이며, 이번에도 역시 좋은 디자인과 성능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기대하셔도 좋을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방가르드 스피커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음악 듣기에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PC나 아이팟 등 어디서든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음악의 순수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좋은 하이파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오디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음악의 순수함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